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7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 2면 하청노조가 보험, 지금 바로 가입
- 3면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나?
- 4면 <단결툰> 대형마트노동자 이야기
- 5면 현장소식

- 6면 노동안전 칼럼, 이주민 칼럼
- 7면 '미조직 활동가 대회' 참가기
- 8면 2016 파견노동포럼 함께 합시다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기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이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시작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만 1만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구조조정 광풍은 조선업에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운, 철강, 화학, 전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부실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경영판단을 내린 경영진과 사주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경영진과 기업주는 직접 책임지기보다 노동자,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당장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생계의 막막함에 내던져진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노조는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줄 방패이자 보험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우산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청노조가 보험, 지금 바로 가입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하청노조가 보험, 지금 바로 가입’이란 구호를 걸고 하청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벌이는 집단 가입 운동이다.

조선업 경기불황의 여파로 현대중공업에서는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사무직 과장급 이상과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500명을 감원했다.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을 생산직까지 확대해 약 1,600여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이미 그전부터 사무직보다 더 많이 잘려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9,50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났다. 특히 해양사업부의 상황은 심각하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만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약 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 좋게 아직 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최악이다. 작년 말부터 임금삭감을 진행해 회사는 일당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서 2~3만원, 시급제는 평균 기본급의 10%를 삭감했다. 수당의 30% 정도 없어진 상황이다. 계속해서 추가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무급순환휴직을 하는 업체가 있고, 매달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는 이들도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런 때일수록 하청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현장 탄압이 심해지며 하청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업체 내 인원 감축 또는 업체 폐업에 맞서 투쟁한 조합원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투쟁한 노동자들이 하청노조에 가입

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1차로 6월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청노조 집단가입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뿌렸다. 사내 하청지회는 지난 6월22일 구조조정과 분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공동투쟁위원회도 만들었다. 지회는 현장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7월4일부터 15일까지 현장에서 2차 하청노조 집단가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청노조가 보험이다. 죽지 않고, 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청노조에 꼭 가입하자.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

수천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대책도 없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살인적 임금삭감도 지금 문 닫기 직전이라며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인적인 해고와 임금삭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조합이 없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한테 최대한 덤터기씌우고 회사(원청)만 살리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노조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노조 안하면 잘린다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은 구조조정 저지로 고용과 임금을 지켜내기 위한 원·하청 투쟁의 시작입니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하청 생산 구조 없애고, 직접고용을 위해 달려 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청노동조합 만들기 부터.



내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불법 반드시 서명 거부하자

1. 하청업체에서 임금삭감 공표 시 제보
2. 대표자 선전(2~3명) 집단 대응
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에 절대 서명 거부
4. 서명 강요 증거자료(녹음, 사진) 확보

업체폐업,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

1. 업체폐업 공표 시 제보
2. 대표자 선전(2~3명) 집단 대응
3. 고용보장, 임금·퇴직금, 근속인정 등 결정내용 문서로 작성

해고,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

1. 해고 통보 시 제보
2. 대상자들 공동 대응
3. 업체별 공동대응 방안 마련

임금삭감, 업체폐업, 부당해고 상담, 노조가입 상담

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061-462-7177 / 010-9542-2025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061-460-2270 / 010-2024-1200

삼호하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010-2472-7757 / 010-4324-5040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나?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조선소에서 요즘 하청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되고 있다. 조선소가 부실해진 것은 경영진 잘못인데 그 고통은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의 재하청인 물량팀 노동자들은 해고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실업급여 참 받기 어렵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물량팀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통계를 보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82.4%인데 비정규직은 42.5%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결국 비정규직 실업자 10명 중 1.5명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왜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흔히 알고 있듯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또한 실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기준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할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발적 퇴사자라도 3~4개월의 유

예기간을 둔 뒤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응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합리적이다.

액수도 적고, 기간도 짧고

실업급여 받기도 어려운데 그 금

한의 생존을 위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실업부조 제도가 전혀 없다.

서울시가 실업부조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하자 오히려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 금액을 실직 전 임금의 70%로 올리고 지급

안의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이를 실직 전 24개월 중 270일 동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43,416원에서 38,592원으로 낮춘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국가의 실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지금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어렵다.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대폭 올리고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기금 거의 대부분은 회사와 노동자가 낸 고용보험료다.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0.54%에 불과하다. 2016년 정부 예산 384조 원 중 실업 예산은 5조원이다. 정부는 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 비용에 10조, 20조 원씩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실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써야 한다.

이김춘택 / 거통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액이나 기간도 생계를 유지하기 턱없이 모자란다. 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 50%밖에 안 된다. 기간도 90~240일에 불과하다. 복지제도가 잘 돼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독일은 실직 전 임금의 60%를 180일에서 720일까지 지급합니다. 스위스는 실직 전 임금 80%를 260일에서 520일까지 지급한다. 덴마크는 실직 전 임금의 90%를 730일 동안 지급한다. 더구나 이런 나라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도 최소

기간도 실업부조를 포함 최대 2년까지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개악 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 개악에 나섰다. 받는 금액을 실직 전 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120일에서 270일까지 30일 더 늘린다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새누리당 개악

노조 만들고 일할 맛 나는데 50대라 아쉬워

월간 「오늘보다」 편집부 제공

노조 만들고 일할 맛 나는데 50대라 아쉬워

그림 | 반지수
구성 | 김유미



노조가 있어야 할 말하고 살 수 있는거야



노동조합을 만든 계기와 생생한 사례를 소개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성공업지회 부지회장 백선엽이라고 합니다. 성서공단 안에 있는 삼성공업에 입사한지 11년차지만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던 신입간부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 회사는 말 그대로 '갑'이었습니다. 노조가 없을 때는 눈뜨면 출근하고 잔업에 야근에 철야에 토요일, 일요일 특근까지 했습니다. 집에 일이라도 생기거나 몸이 아파 잔업 특근 한번 빠지려면 회사 관리자들에게 온갖 눈치 눈총을 받았습니다.

여성사원이 결혼을 하고 애라도 가지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떠나야했죠. 임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물어보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저 회사가 하라는 대로 살았죠. 일하다 다쳐도 내년 시급 인상에 어떻게 반영될까 쉬쉬하며 몰래 넘어가고 치료비는 개인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참고 견딜 만 했지만 회사 임원의 인간적인 모독과 막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임원은 사무실에 사람이 있건 없건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삼성공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현상이 어떻게 변했나요?

막말을 일삼던 임원이 저희에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조휴가 제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의사표현하기가 자연스러워 졌고, 한 달에 15결레 지급되던 장갑과 소모품은 개인사비로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지급됩니다.

임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비춰봤을 때 지금처럼 오르는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함에 자기의견을 적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고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뭔가요?

비정규직으로 4년 일한 여성동료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일한 기간의 경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육아 때문에 회사를 떠난 여성동



료를 회사에 복직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있으니 좋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집회현장에서 인사하며 '수고했어'라는 대답을 들을 때 노동조합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미조직 공단 비정규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노동조합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조합원들이 개인의 벽을 넘어 우리라는 한 울타리로 모였기 때문에 회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각 회사를 넘어 지역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이 바뀔 겁니다. 금속노조 15만이 지역을 넘어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아마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모아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찾읍시다. 그 길에 삼성공업지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 백선엽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성공업지회 부지회장

	노동조합 만들기 전	노동조합 만든 후
일하는 시간	잔업, 야근, 철야, 토요일, 일요일 특근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임금인상	최저시급에 박봉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해고, 눈치 보여 사용불가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떠나야했던 여성동료 복직시킴
각 종 휴가	예) 경조휴가 남자: 부모상 3일, 처부모상 연차사용 여자: 부모상 3일, 시부모상 연차사용	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인간적인 대우, 노동자로서 자존감	인격적인 모욕과 막말	회사임원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직원답게 대우
한 달 15결레 장갑, 소모품, 보호장구	개인 사비로 구매	부족함 없이 무상지급
체육대회 등 사내복지	그게 뭐죠? 한번도 없었음	처음으로 회사 복지차원 체육대회 진행 가을 आय회 갈 예정
근로조건 등 바꿀 때	무조건 회사의 일방 통보 불만이 있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함 건의함에 자유롭게 의사표현 가능
비정규직 정규직화	4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동료	정규직 전환하고 비정규직 4년 근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음

작업 환경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2016년 1월과 2월 대기업 사외 협력업체 휴대폰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탄올을 취급했던 노동자들은 실명(3명), 시야 결손(1명), 뇌손상(1명)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2001년 경비절감을 위해 '활선 공법'을 도입하면서 2만 2900볼트나 되는 고압이 흐르는 곳에서 '정전'을 하지 않고 작업하게 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동안 13명의 노동자

가 감전 사고로 사망하고, 140명은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 사고를 당했다.

구의역에서 젊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 붕괴로 노동자 14명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었다. 관리자들은 안전교육 일지를 조작했고, 이들을 보호할 안전상의 조치를 갖추지 않았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노동자가 파견, 하청,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했다는 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해당 작업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았더라도 사업주에게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하거나 개인 보호구 지급 요구를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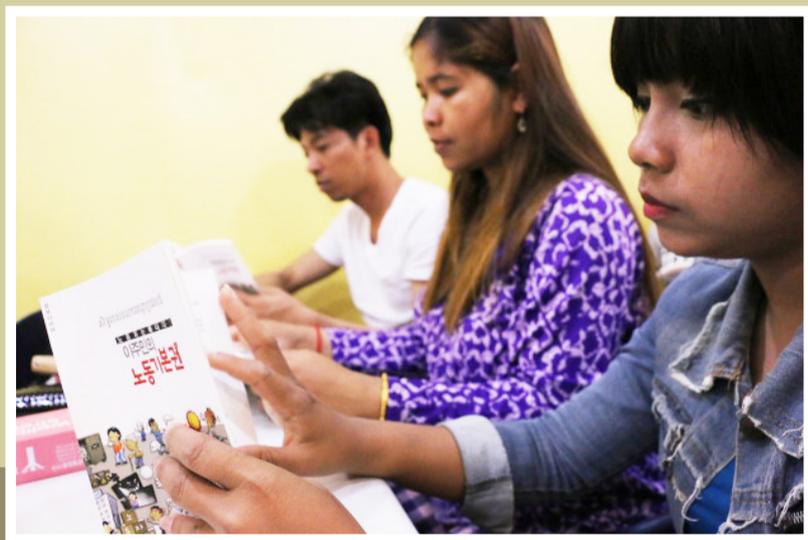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작업이 위험하면 즉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했는데도 사업주가 작

업을 시켰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작업 거부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징벌적 손해 배상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당장 파견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기 힘들더라도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열차 맨 뒤통에 탄 사람들



인천에 작은 공장이 있었다. 공장의 낡고 안전장치가 없는 프레스 기계는 사업주의 오른손, 그의 부인의 왼쪽 손가락 3개, 공장장의 왼손을 잘라먹었다. 공장에 새로 배정받은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3명은 이주노동자들도 여러 명 다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신해 베트남 공동체에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여러 번 전화해서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청 직원이 사업주에게 전화로 뭐라 했나 보다. 결국 사업주는 기계를 교체하는 대신 베트남 노동자 한 명당 50만 원씩을 받고 사업장을 옮기는 데 동의해줬다. 그 프레스 기계는 오늘도 누구의 손가락을 잡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구의역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다. 6월 1일 경북 고령의 제지공장에서는 방독면도 쓰지 않고 유독가스가 가득 찬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간 20대 네팔노동자와 그를 구하러 들어간 50대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쓰러졌다. 일주일 뒤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포스코 건설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또 일주일 뒤에는 성남의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월급

127만 원을 받은 특성화고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40대 간호사가 목숨을 끊었다.

산재로 다치고 죽어 나가는 용역·하청업체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교 실습생, 이주노동자,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공통점은 값싼 노동자라는 점이다. 임금이 싸니 목숨값도 싸다. 기계를 고쳐 쓰는 것보다 노동자를 갈아치우는 것이 더 싸다. 목숨값도 싼데 손목 하나쯤이야 뭐 대수겠는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산재 사건을 보고 있노라니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났다. 기차 앞칸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맨 뒤통에 탄 사람들은 네 손 하나, 내 다리 하나 잘라 먹어 가며 근근이 버틴다.

영화에서는 얼어붙은 기차 밖 세상에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분명하고 명쾌한 대안이 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고, 노동자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해서 노동자의 몸값, 목숨 값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드는 돈보다 비싸지게 하면 된다.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노동조합과 친해지기



‘거동고 하청노동자 살리기 지역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두 분과 함께 지난 6월17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관한 ‘미조직 활동가 대회’에 다녀왔다. 장소는 충북 영동에 있는 노근리 평화공원이었다. 시간 여유가 있어 근처에 있는 쌍굴다리 부터 먼저 둘러봤다.

그곳은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6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콘크리트벽에 남아있는 총탄자국은 선명하기만 했다. 쌍굴다리 주변은 물론이고 안쪽 벽면까지 수없이 많은 총탄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만 보더라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어렵지 않게 연상됐다.

시골마을에 살던 무고한 이백여 명의 주민이 중무장한 미군에 포위당해 아무 이유 없이 학살당한 현장에서 미조직 활동가대회가 열렸다. 그런 현장에서 이 시대 가장 고

통 받는 무권리, 무방비 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모임을 연다는 게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다.

건설노조 조직화 과정에 대한 강의로 첫 일정이 시작돼 전국 다섯 개 지역 조직화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건설노조의 경우 우리 조선소의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 많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날 있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강의는 내용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강의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륜과 깊이를 감출 수 없는 외모에 매끄럽고 강단 있는 목소리와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강사의 상냥하고 친절한 어투로 강의는 물 흐르듯 두 시간을 이어나갔다.

‘노동자의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왜 조직화는 답보상태에 있는가?’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이 왜 갈수록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원인과 해법을 여섯가지 주제로 설명해나갔다. 여섯가지 주제 모두 중요하고 서로 연관돼 있지만 특히 가슴에 여지없이 꽂히는 내용이 있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가입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사회적 여건은 치워두고라도, 노조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자격’이 안 돼 가입을 못한다는 내부의 장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다. 엄연히 존재하는 내부의 장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엄중함을 넘어 비장하게 느껴졌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답답하고 절망감까지 느꼈던 내 심정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식도 노조에 참여하는 방식도, 그리고 노조의 활동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문제는 결국 노동자 자신이 어찌하는 가에 달려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 해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하청노동자 모두가 투사가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함께 한 발짝만 더 다가가 서주면 된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어느 놈도 겁날 것 없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일어서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16 파견노동포럼 함께 합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등 9개 노동·인권·법률 단체들이 여는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 파견노동포럼'이 열립니다. 이 포럼은 파견법 폐기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는 이 포럼은 앞으로 매년 열 계획입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파견법 18년, 파견·간접고용 노동자가 말하는 삶과 노동, 권리를 향한 투쟁' '파견제도에 맞서는 노동법적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단에 매일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파견업체가 넘쳐나고 불법 파견이 만연합니다. 노동자의 삶과 노력이 파괴되는 동안 회사와 정부가 간접고용 구조를 이용해 수천 수백억원씩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자 권리 축소를 가져왔다는 건 공단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파견법을 끝까지 개악하려 하는 정부, 재벌, 회사에 맞서 파견법 폐기만이 해답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파견법 폐기를 사회적 요구로 만들고, 파견법 폐기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파견노동포럼에 참가해 함께 고민해봅시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 파견노동포럼
2016년 7월 9일(토) 10시 ~ 18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조계사 내)

악법은 존재하는 한 계속 악법성을 더해가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파괴합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말하기 위해 파견법 자체의 폐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놓아서는 안 될 당면 과제입니다.

01 SECTION
10시~12시
발언대
파견법 18년, 파견·간접고용 노동자가 말하는 삶과 노동, 권리를 향한 투쟁

- 진행: 유홍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공공부문 간접고용 (이대희, 서울지하철경정비지부 정책부장)
- 제조업 파견노동 (이영숙, 공단지역 파견노동자)
- 외주화에 맞선 투쟁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 간접고용에 맞선 일본 노동자 투쟁사례 보고 (반 사치요, 수도권 나까마유니온)

02 SECTION
13시~15시 40분
법률과 정책
파견제도에 맞서는 노동법적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진행: 김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 발표: 와카다 시게루 (류교쿠대학 법학부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학 법학과 교수)

03 SECTION
16시~18시
운동전략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전략

- 사회: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표: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전략 (김해진, 철매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 토론1: 박희은 (민주노동 미조직비정규직사업실), 토론2: 이대우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토론3: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주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서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동법률지원센터, 공공운수, 관·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단체 노동권력, 인권단체 연석회의 (후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2016 인권활동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인권재단사들